

건설 침체 속 봉형강 시장 ‘불안정’ 제강사, 가격 정상화로 수익성 방어

동국제강 H형강 가격 108만원 고시
현대제철 실거래가 반영해 가격 조정

환율 원가압박 속 철근 가동률 49%
가격 반등으로 공급불균형 완화기대

건설 경기 침체로 저가 경쟁이 심화되며 봉형강 시장의 가격 질서가 흔들리자 동국제강과 현대제철이 H형강 판매 가격 고시를 재가동하며 가격 정상화에 나섰다. 철근 시장 역시 가격 반등 시도가 이어지며 제강사 전반의 수익성 방어 전략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3일 업계와 하나증권 등에 따르면 동국제강은 오는 19일부터 중소형 H형강 판매가격을 톤당 108만원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유통가격(국산 S725) 103만원 대비 톤당 5만원 인상이다. 동국제강의 H형강 가격 고시는 지난해 11월 초 이후 2개월 만이며, 2월 추가 인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는 최근 H형강 가격 하락세와 철스크랩 가격 상승, 전기요금 부담이 맞물리며 제강사 원가 압박이 커진 점이 가격 조정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제철도 H형강 판매가격 고시를 2개월 만에 재개했다. 현대제철은 오는 19일부터 소형 H형강 판매가격을 톤당 108만원으로 적용하는 가격 방침을 거래처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11월 톤당 115만원의 고시가격을 제시했지만, 시장 침체로 실거래가 가이를 따라가지 못했던 상황을 반영한 조정으로 해석된다. 다만 연초 들어 철



현대제철 인천공장 H형강 생산 모습.

/현대제철

스크랩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원가 압박이 확대되고 있어 2월 가격 인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H형강 가격이 수요 침체와 원가 상승을 고려해 ‘적정 수익성 확보’ 방향으로 조정되는 가운데 철근 시장에서도 가격 인상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동국제강은 1월 2주차 철근 유통 판매가격을 톤당 71만5000원으로 고시했으며, 전주 대비 1만5000원 인상됐다. 다만 철근은 수출 확대에 따른 가격 인상 요인도 뚜렷하다는 평가다. 1~2월 철근 수출 물량은 약 30만톤으로 내수 판매 압박을 완화하고 있으며, 수입산 재고는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월 제강사 철근 출하 계획은 51만6000톤으로 최근 5년 평균(64만2000톤)을 크게 밑돌았다.

국내 8대 철근 제강사 가동률은 1월 기준 49.6%로 지난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제한 출하 기조가 이어지며

유통시장 가용 물량이 줄어들고 있어 철근 공급 과잉 완화와 가격 회복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철근발 가격 회복 흐름이 H형강과 열연 등 다른 강재 가격 인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임종호 순천제일대 제철산업과 교수는 “H형강은 건설 산업의 대표적인 주력 철강재로, 철강산업은 주변 산업 경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라며 “최근 철스크랩 가격 상승과 교환율 환경은 철강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외부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국제강은 가격 현실화에 나선 반면 현대제철은 실거래가 하락을 반영해 유연한 대응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외부 환경만 놓고 보면 가격을 내릴 요인이 없지만 내수 부진이 제강사들로 하여금 저가 경쟁을 감내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LX판토스

‘메가와이즈 청라센터’
美 LEED ‘골드등급’ 획득
9개 평가 영역서 고른 점수

LX판토스의 메가와이즈 청라 물류센터가 글로벌 친환경 건축물 인증 ‘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에서 골드(Gold) 등급을 획득했다. 미국 그린빌딩위원회(USGBC)가 운영하는 LEED는 전 세계 186개국 기업과 기관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친환경 건축물 기준이다. 에너지, 물, 자재, 토지, 실내환경 등 건축물의 환경 성능들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3일 LX판토스에 따르면 메가와이즈 청라 물류센터는 ▲에너지·대기 ▲물 효율 ▲재료 및 자원 ▲지속 가능한 토지 사용 등 9개 LEED 평가 영역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아 골드 등급을 획득했다. LEED 골드 등급을 획득한 것은 국내 신축 물류센터 중에서 두번째다.

최근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글로벌 고객사의 요구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물류업계를 비롯한 공급망 전반에서 친환경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다.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및 남창라IC에 인접한 메가와이즈 청라 센터는 연면적 14만2852㎡ 규모의 초대형 풀필먼트 센터다.

/김승호 기자

HJ重, MRO사업 본격 시동 美군수지원함 정비작업 착수

‘아멜리아 에어하트’ 영도조선소 입항
설비점검 등 거쳐 3월 미 해군 인도

HJ중공업은 자사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의 첫 선박인 4만 톤급 군수지원함 ‘USNS 아멜리아 에어하트’호가 지난 12월 부산 영도조선소에 입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함정은 HJ중공업이 지난해 12월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NAVSUP)로부터 수주한 선박으로, 길이 210m·너비 32m 규모다. 미 해군 전투함 등 주력 함정에 최대 6000톤의 탄약·식량·건화물과 2400톤의 연료를 보급할 수 있는 군수지원함이다.

전날 입항과 접안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항 도선과 예인선 등 항내 관공선이 투입돼 복항 방파제부터 아멜리아 에어하트함의 항행을 안전하게 인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HJ중공업은 이달부터 아멜리아 에어하트함 정비 작업에 본격 착수해 각종 장비·설비 점검과 유지보수 등을 거친 뒤 오는 3월 미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국내 해양방위산업체 1호 기업인 HJ중공업은 지난 2024년부터 MRO 시장



아멜리아 에어하트함 입항.

/HJ중공업

진출을 준비해온 끝에 지난해 12월 미 해군으로부터 첫 MRO 사업을 수주했다.

조선업계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른 MRO 시장은 지난해 79조원 규모로, 이 가운데 미 해군 MRO 시장은 연간 2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내에서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에 이어 HJ중공업이 세 번째로 미 해군 사업을 수주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협력 기반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중국 해군력 증강을 견제하기 위한 ‘골든 플릿(Golden Fleet)’ 구상 승인으로 조선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유혜은 기자

김기문 “대·中企 상생, 경제 도약해야”

(중기중앙회장)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정치·경제계 주요인사 350여명 참석

중소기업계가 ‘2026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열고 역동적인 경제 도약을 다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주요 인사와 정부 부처·장·차관급 인사 등 총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경제계에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을 비롯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금융지주 회장, 중소기업 단체장, 청년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임광현 국세청장, 백승보 조달청장을 비롯해 주한 중국·베트남·UAE·오만·카타르·카자흐스탄 대사 등이 자

리했다.

국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조배숙·서영교·박성민·강승규·김원이·배현진 의원·오세희·문대림·한민수·송재봉·박지혜·최보윤·박준태 의원 등이 함께 했다.

김기문 회장은 신년사에서 “60년 만에 돌아온 적토마의 해를 맞아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AI혁명이라는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아 중소기업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가 사자성어로 선포한 ‘자강불식(自強不息)’을 소개하며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쉬지 않고 달리는 의지를 통해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주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6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부터)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대한항공, 라운지에 ‘엔터테인먼트’ 더했다

제2터미널에 체험형 라운지 새단장
쿠킹 클래스·아케이드 룸 등 선보여

대한항공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체험형 프로그램을 갖춘 새 라운지를 13일 공개했다.

라운지는 총 1553제곱미터(㎡) 면적에 192석을 갖췄다. 뷔페와 라이브 스테이션, 식사 공간, 라운지 바, 샤워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고객이 항공기 탑승 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테크 존 등 업무에 최적화된 공간도 마련해 출장객의 편의를 높였다.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동편 좌측 라운지는 기존 기능에 체험형 프로그램과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더한 점이 특징이다.

라운지 한편에 ▲쿠킹 스튜디오(L'atelier) ▲아케이드 룸(Arcade Room) ▲라면 라이브러리(Ramyeon Library)를 마련해 다른 라운지와 차별화했다.

라운지 내 쿠킹 스튜디오에서는 그랜드 하얏트 조리사와 함께하는 쿠킹 클래스를 진행한다. 다양한 토핑을 활용한 바크(Bark) 초콜릿 만들기 등 모든 연령대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쿠킹 스튜디오 입구에서 예약한 뒤 참여할 수 있다. 아케이드 룸은 포토부스, 인형 뽑기, 에어 하키, 카레이싱 등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라운지는 14일 정식 오픈하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53번 탑승구 맞은편 4층에 있다.

/양성운 기자 ysw@

美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지원 본격화

중진공, 중기부 SVC내 KSC 개소
스탠퍼드대 StartX와 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K-스타트업센터(KSC)’를 새로 열고 국내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과 수출 확대 등을 돕는다. 스탠퍼드대 StartX와 진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중진공은 지난 9일 ‘KSC 실리콘밸리’를 개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중진공이 운영하는 6번째 KSC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벤처캠퍼스(SVC)내에 자리잡고 있다.

센터는 ▲스타트업 입주공간 제공 ▲전문가 멘토링 ▲현지특화 프로그램 ▲투자유치 네트워킹 등 현지 진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지원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아울러 입주기업들에게 기술실증, 마케팅, 투자유치 등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